

GISC 2025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2025

(세션2) AI를 활용한 응용기술 표준화

AI 시대의 접근성과 디지털 포용 기술 표준화

손 학 대표이사
(주)에스씨이코리아

ICT Standards and Intellectual Property:
AI for All

Index

01 배경 및 필요성

02 현황 및 문제점

03 접근성 표준화와 기술 동향

04 해결과제 및 방안

1-1. AI Services and Vulnerable U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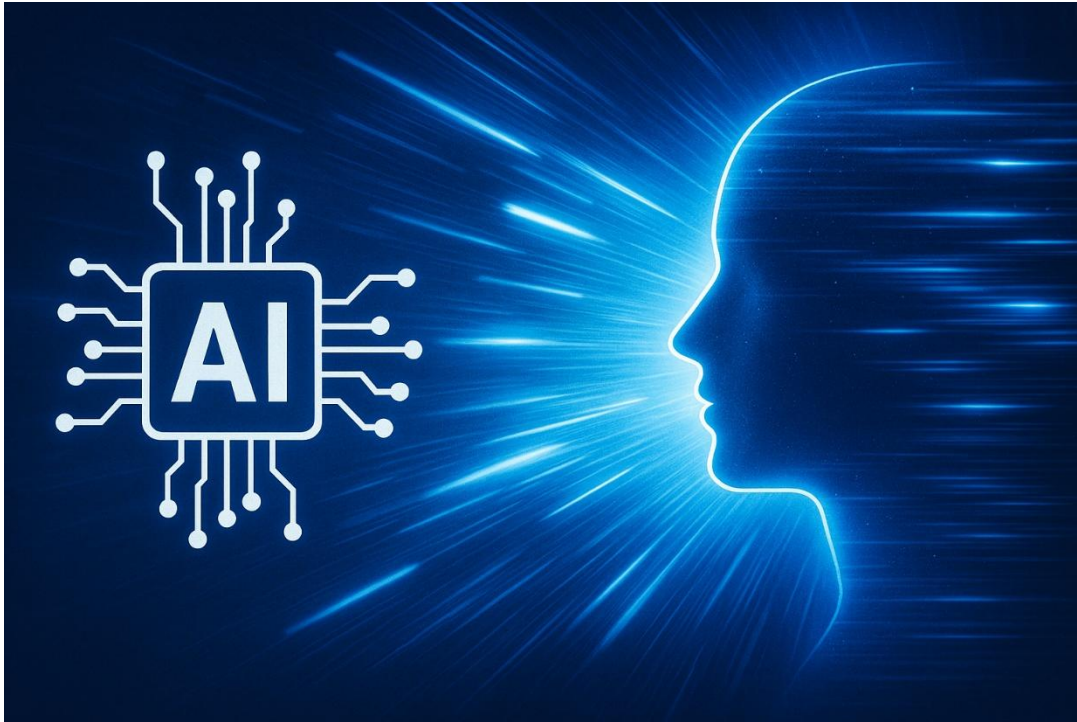
| AI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격차를 느끼는 중년의 사용자.



*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1-2. AX(AI Transformations)

I DX에서 AX로 디지털 사회가 AI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낌을 받음.



1-3. 보편적 설계의 중요성

|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정보취약계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됨.

UNIVERSAL DESIGN

Making design accessible to everyone in society



다수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정보 설계 및 운용이 필요함

1-4.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1-5. 지속가능한 개발목표(UN SDG)

|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격차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에 속함.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를 추구하며 아래의 상세 목표를 사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화한다.

1. SDG No.10 Reduced Inequalities(불평등 해소) - 정보화 시대에 정보 소비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2. SDG No.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지속가능한 도시) - 정보화되는 도시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1-6. 인구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고령자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인구 고령화의 가속

2030년까지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했습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5% ~ 40%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억

2030년 고령 인구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 전망

50%

디지털 활용률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은 젊은 세대의 절반 수준

2025

고령화사회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2-1. AI가 가져온 개선과 장벽

I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접근성 기술의 개선과 새로운 장벽의 등장.

- AI가 가져온 접근성 개선



음성 인식 기술

시각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한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가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영상 자막 생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생성과 수어 번역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번역

언어 장벽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새롭게 등장하는 장벽

편향된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에 특정 집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사용자에게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AI의 판단 과정을 이해할 수 없어, 사용자가 결과를 신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

AI 기반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사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2-2. AI로 인한 정보 격차의 증대

디지털사회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정보격차의 속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음.

효율성 증대와 불평등 심화

인공지능은 업무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소외되는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층,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사용자들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배제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포용의 속도 격차

기술 발전의 속도는 빠르지만, 포용적 설계와 접근성 개선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핵심 메시지: 기술의 속도보다 포용의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는 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2-3. 디지털 포용 정책의 현재 공백

| 포용적 교육·데이터·거버넌스의 부재는 AI를 또 다른 배제의 도구로 만들 수 있음.

해결해야 할 3가지 핵심 과제

맞춤 AI 교육 부족

성인,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AI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합니다

교육 커버리지

포용적 데이터 준비 미흡

고령자와 장애에 대한 데이터와 편향
제거와 공정 알고리즘을 위한 다양성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데이터 다양성

사용자 피드백 루프 부재

취약계층 친화적 피드백 채널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의견 수렴

* 보완 없이는 AI가 '또 다른 배제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포용은 기술이 아니라 체계로 만들어집니다.

2-4. 접근성은 배려가 아닌 권리

| 접근성은 일부를 위한 편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권리이자 혁신의 출발점임.

삶의 질 향상

접근성 개선은 독립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삶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시간 손실 감소

- 접근성 개선은 삶의 질과 독립성을 높이고, 시간 손실을 줄여 실질적 삶의 이익 제공.



보편적 권리

- 국제 사회는 Leave no one behind 원칙 아래 접근성을 보편 권리로 인식.



3-1. 글로벌 접근성 표준 동향

| 글로벌 표준과 법제화가 확산되며 접근성은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음.



WCAG 2.2 (W3C)

전 세계 웹 접근성 표준, 3.0 차세대 준비 중



EN 301 549 & EAA

2025년 6월부터 EU 전역 웹/모바일/ATM 의무화



ADA & Section 508

ADA Title II로 공공 웹/앱 WCAG 2.1 AA 준수 명시

핵심 추세

- 표준의 법제화
- 시장진입 요건화
- 공공 조달 연계

12개

EAA 적용 카테고리

전자상거래, 은행, 교통 등

60개

조달 요건 포함 국가

2025년 기준 전망



3-2. 미국 디지털 접근성 법규 및 최신 동향

| 미국은 강력한 법률과 활발한 소송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함.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에 제정된 광범위한 민권법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서비스에도 적용되도록 법원이 해석하며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Section 508

연방 정부 기관 및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전자 및 정보 기술(EIT)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하며,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AA 수준 준수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합니다.

* 최근 법원 판례 동향 및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몇 년간 미국 법원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미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DOJ)는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WCAG 2.1 AA 이상 준수를 권고하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압박은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디지털 접근성 준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준수 시 발생하는 소송 위험과 막대한 벌금, 그리고 기업 이미지 손상은 모든 기업이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웹 접근성 표준(WCAG) 도입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3-3. 유럽 접근성 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의 영향

| 유럽 접근성 법은 제재보다는 기업에 유연한 제도의 도입을 목표.

발효 시기

2025년 6월 28일 발효
(2019년부터 계도기간을 운영)

적용 범위

전자상거래, 금융, 교통, 전자책, 전자통신
서비스 등 폭넓은 산업

글로벌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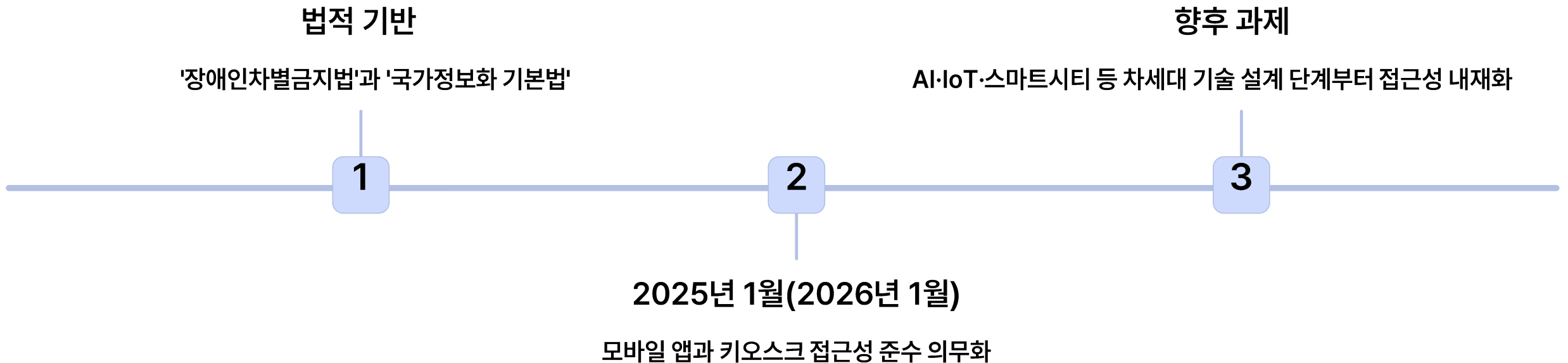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 제조사에게 실질
적인 설계·개발 단계의 변화 요구

유럽 각국은 EAA 준수를 국가별 법률에 반영하고 있으며, 미 준수 시 벌금이나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접근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4. 한국의 접근성 제도적 시행 및 향후 방안

|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로 확대 예정



한국 역시 공공·민간 영역의 접근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품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접근성 격차도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표준 준수 + 자동화 점검 + 사용자 참여 테스트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3-5. W3C(World Wide Web) 접근성 표준

W3C는 웹 표준을 관리하는 국제기구로, 접근성 분야에서는 WAI를 중심으로 WCAG가 표준의 중심으로 적용됨.



WCAG 2.2

WCAG 2.2는 기존 WCAG 2.1을 확장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지 및 이동성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성공 기준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터치 스크린 및 다양한 입력 방식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 현대 디지털 환경에 더욱 적합합니다.



WCAG 3.0

WCAG 3.0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기존의 이분법적인 준수/비준수 방식에서 벗어나 성숙도 기반의 평가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는 다양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점진적인 접근성 개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AI-ARIA 1.2

WAI-ARIA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 1.2는 복잡한 웹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컴포넌트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스크린 리더와 같은 보조 기술이 동적인 콘텐츠와 인터랙티브 요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맨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6. WCAG 2.2의 주요 개선사항

| WCAG 2.2는 모바일 상호작용과 인지/이동성 사용자를 포함한 사용 경험을 보강.

- ☐ 포커스 표시 강화
키보드 사용자를 위한 명확한 포커스 표시
- ☐ 인증의 인지 부하 완화
복잡한 인증 과정 단순화
- ☐ 드래그 제스처 대체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의 대안 제공

* 동시에 W3C는 차세대 WCAG 3.0(Working Draft)을 공개해, 평가 구조와 적합성 모델을 새롭게 설계 중입니다.
실무자는 지금 2.2를 채택하면서 3.0 방향을 미리 반영하는 '미리 준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3-7. WCAG 3.0(W3C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웹(Web)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확대.

WCAG 3.0 개요 및 현재 상태

WCAG 3.0은 차세대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Working Draft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등급 시스템 (Bronze/Silver/Gold)

Bronze, Silver, Gold의 3단계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이 점진적으로 접근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모든 디지털 제품으로 적용 범위 확장

웹 콘텐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IoT 등 모든 디지털 제품 및 환경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합니다.

WCAG 2.2와의 주요 차이점

2.2의 이분법적(통과/실패)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성숙도 기반의 연속적인 평가 모델을 도입합니다.

결과 중심 평가 방식

구체적인 기술 구현보다는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진을 위한 대응 방안

WCAG 2.2 준수를 기반으로 3.0의 원칙(성숙도, 사용자 경험, 포괄적 접근)을 미리 이해하고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8. ISO/IEC JTC1 SC35

|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다양한 접근성 표준 개발 중.

SC35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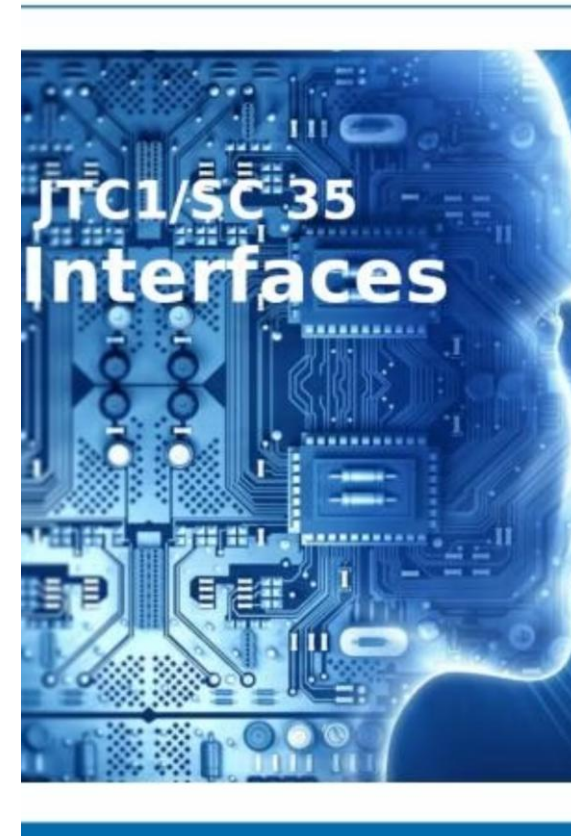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성 표준 개발

- 접근성 설정 이전
- 음성 명령 UI
- 접근성 참조 표준

최근 활동

다양한 표준 개정 및 발간

- ISO/IEC DIS 29138-4 : 사용자 접근성 요구사항
- ISO/IEC CD 20071-24 : 수어를 통한 음성 정보 시각화
- ISO/IEC DIS 20071-31 : 키오스크 접근성



3-9. ISO/IEC DIS 20071-24: 수어를 통한 음성 정보 시각화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영상의 정보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도록 설계된 가이드라인임.

표준의 핵심

이 표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속 소리를 '수어(수화)'로 보여주는 방법을 정리한 규칙입니다. 드라마나 뉴스처럼 소리가 중요한 영상에서, 소리를 듣기 어려운 사람이 화면 속 수어 통역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함 내용

- 수어 통역 화면의 크기
- 화면 내 위치
- 배경색 선택
- 움직임의 선명도



이 표준은 영상 제작자와 배급사에게 "수어 통역을 어떻게 하면 보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장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영상의 중요한 소리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가이드라인입니다.

3-10. ISO/IEC DIS 20071-31: 키오스크 접근성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



화면 설계

화면 높이와 각도, 터치 버튼의 크기와 간격, 글자 크기와 색 대비를 고려한 설계



점자 표기

중요한 정보와 버튼에 점자 표기 추가



음성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제공



물리적 접근성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 목표는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설치 환경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3-11. ITU-T의 접근성 표준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SG21, 사물인터넷 등의 차세대 기술 중심의 SG20.



SG20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접근성



SG21

멀티미디어 접근성



JCA-AHF

접근성·인간요소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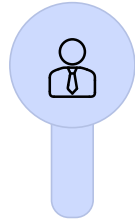
ITU 산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으로, ICT 전반의 국제 표준을 개발합니다.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SG21(멀티미디어), JCA-AHF(접근성·인간요소 공동 조정 활동)을 통해 접근성 표준을 마련하며, 특히 SG20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시티버스 기반 서비스에 특화된 접근성 권고를 개발 중입니다.

3-12. YSTR.ACC-SCC: 스마트시티 IC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ICT기반의 가이드라인.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의 모든 서비스-버스, 안내판, 키오스크 등-를 똑똑하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드는 그런 도시에서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ICT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술 안내서입니다.



설계 초기부터 접근성 고려

장애인이거나 고령자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반영



두 개의 기준 레이어

기본적인 구조를 인터페이스 영역과 정보 영역으로 구분
(Interface Layer와 Information Layer)



다부서 협력

IT 부서, 도시 계획 담당자, 제품 설계자 모두 함께 참고

3-13. Y.ACC-ASM: IoT 서비스의 접근성 프로필 관리

IoT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 프로필을 정의함.

표준의 목적

이 권고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를 위해 접근성 설정을 미리 저장하고 자동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접근성 프로필의 장점

- 사용자별 맞춤 설정 자동 적용
- 매번 설정 반복 불필요
- 서비스 제공자의 효율적 운영
- 일관된 사용자 경험 제공

프로필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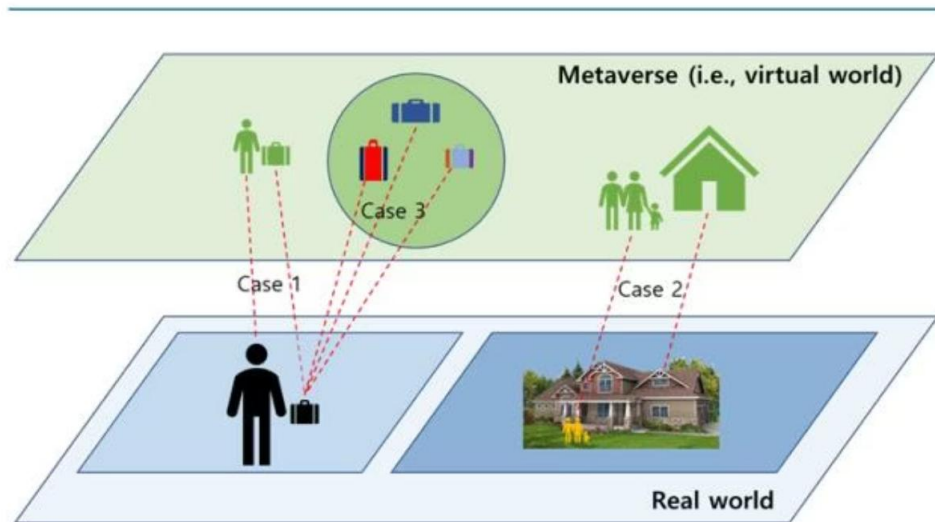
글자 크기, 색 대비, 자막, 음성 안내 등 개인 설정 저장

자동 적용

IoT 서비스 접속 시 자동으로 설정 활성화

3-14. Y.ACC-IoTMV: 메타버스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의 사용자 경험 기반의 접근성 표준임.



1. 정보취약계층이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준수
2. 메타버스 안에서도 정보취약계층임을 표현하는 방법도 필요

시각 접근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및 촉각 피드백

청각 접근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시각적 신호

운동성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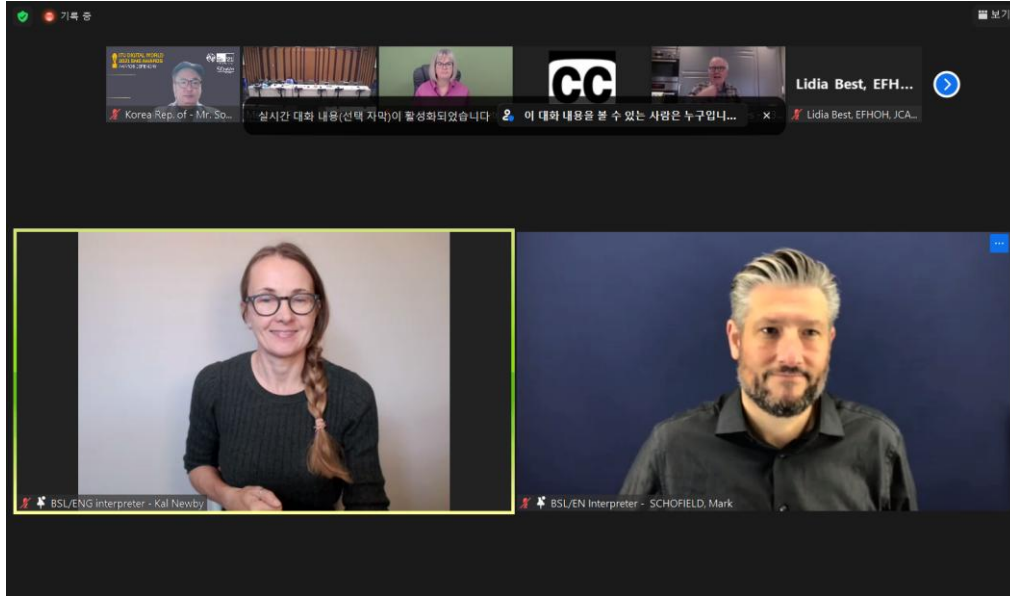
다양한 입력 방식 지원

인지 접근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3-15. JCA-AHF(Joint Coordination Activity-Accessibility and Human-Factors)

■ JCA-AHF는 ITU와 타 SDO를 포함하여 '접근성과 인간 중심 요소'를 조정하는 특별 조직임.



국제 협력

G3ICT, IGF_DCAD, EFHOH 등과 협력

표준 정합

ISO DIS 9241-171, ISO/IEC 20071-24와의 조율

조직 개편

Andrea Saks(미국) 의장 사임에 따른 운영 체계 조정
(Lidia Best(영국) 신입 의장 취임)

3-16. AI를 활용한 접근성 기술 영역

| AI를 활용하여 기존 UX를 개선하거나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정성적 품질보증을 가능하게 함.

Two Key Approaches

AI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모바일 접근성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AI-Enhanced Services & 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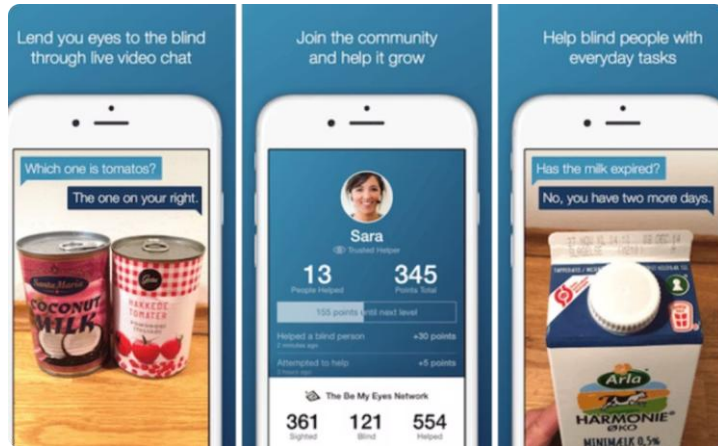
-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접근성과 적응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상황 인식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자동 조정하여 모바일 사용 환경을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AI for Accessibility Evaluation

- 접근성의 장애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테스트와 규정 준수 검증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 패턴 인식 기술을 통해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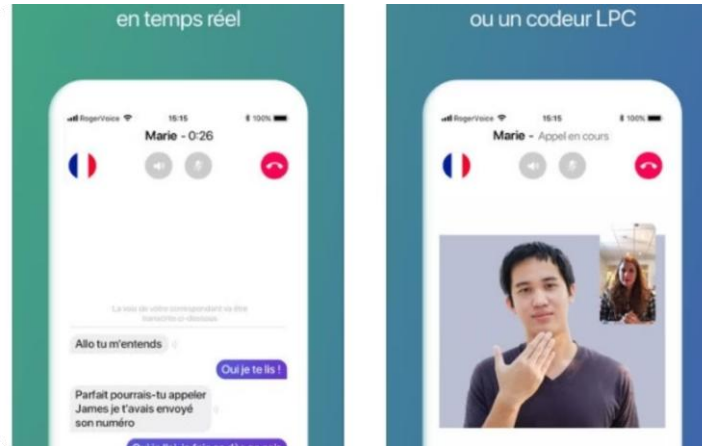
3-17. AI를 활용한 접근성 서비스

AI와 연동되어 새로운 형태의 UX와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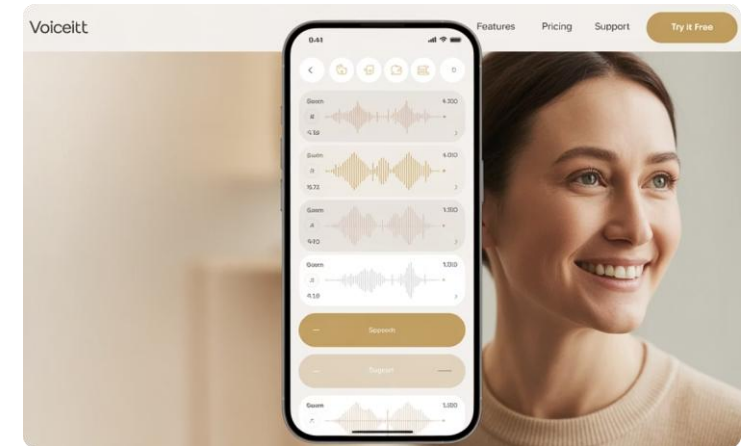
Be My Eyes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사용자를 위해 사물, 텍스트,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AI 기반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품을 식별하고, 문자를 읽고, 장면을 설명하며, 공간 안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Rogervoice

전화 통화에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과 난청 사용자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술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여러 언어와 방언의 음성을 높은 정확도로 문자로 변환합니다.



Voiceitt

뇌성마비, 뇌졸중, ALS(루게릭병) 등으로 인해 발화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특화된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사용자 개인의 발음 패턴을 학습하여, 비표준적인 말소리를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변환합니다.

3-18. 표준/인증 활용한 포용 혁신 전략

법·인증·기술을 결합해 표준을 현장 실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용 혁신의 핵심임.

국제표준 준수(전략)

- WCAG 2.2/EN 301 549를 국내 법·조달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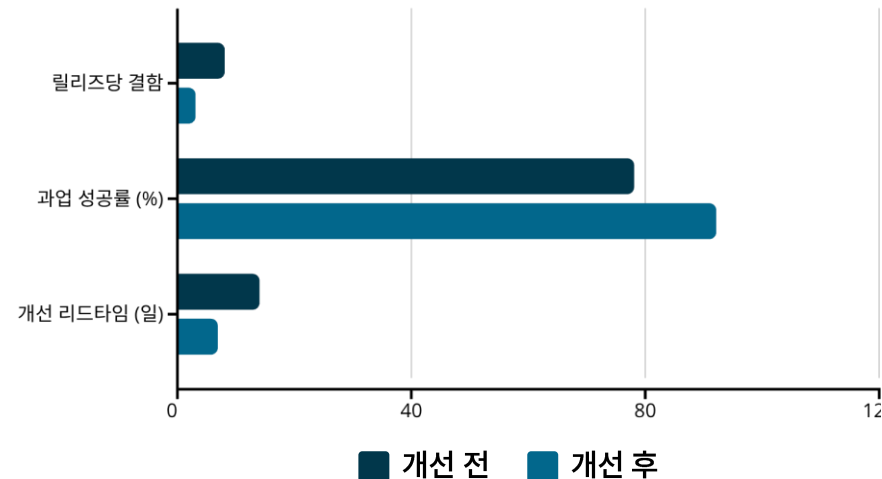
실사용자 참여(제도)

- 장애인·고령자 테스트 결과를 평가에 반영

AI 자동 점검(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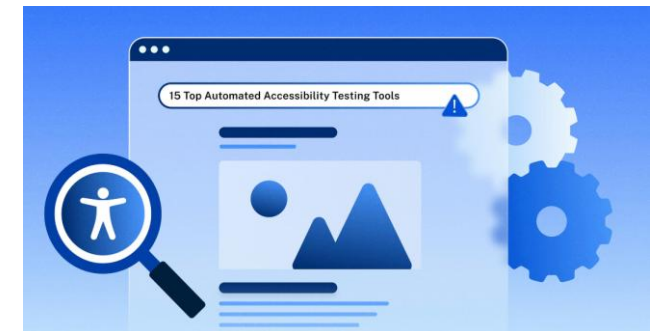
- 개발~운영 전 주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실행 효과



실행 체크리스트

- 신규/조달 과제에 접근성 요건 명문화
- 인증 평가에 과업 성공률·오류율 포함
- 분기별 자동 스캔 리포트 운영
- 개선 백로그 상시 관리



4-1. 포용적 미래를 위한 전략 방향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기술과 정책에 접근성과 포용을 내재화해야 함.

- ESG-SDG 핵심 가치

디지털 포용은 ESG(S, G) 핵심 가치로,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 선언에서 실행으로

말뿐인 선언이 아닌, 구조와 프로세스 내재화로 실질적 변화를 만듭니다.

- 접근성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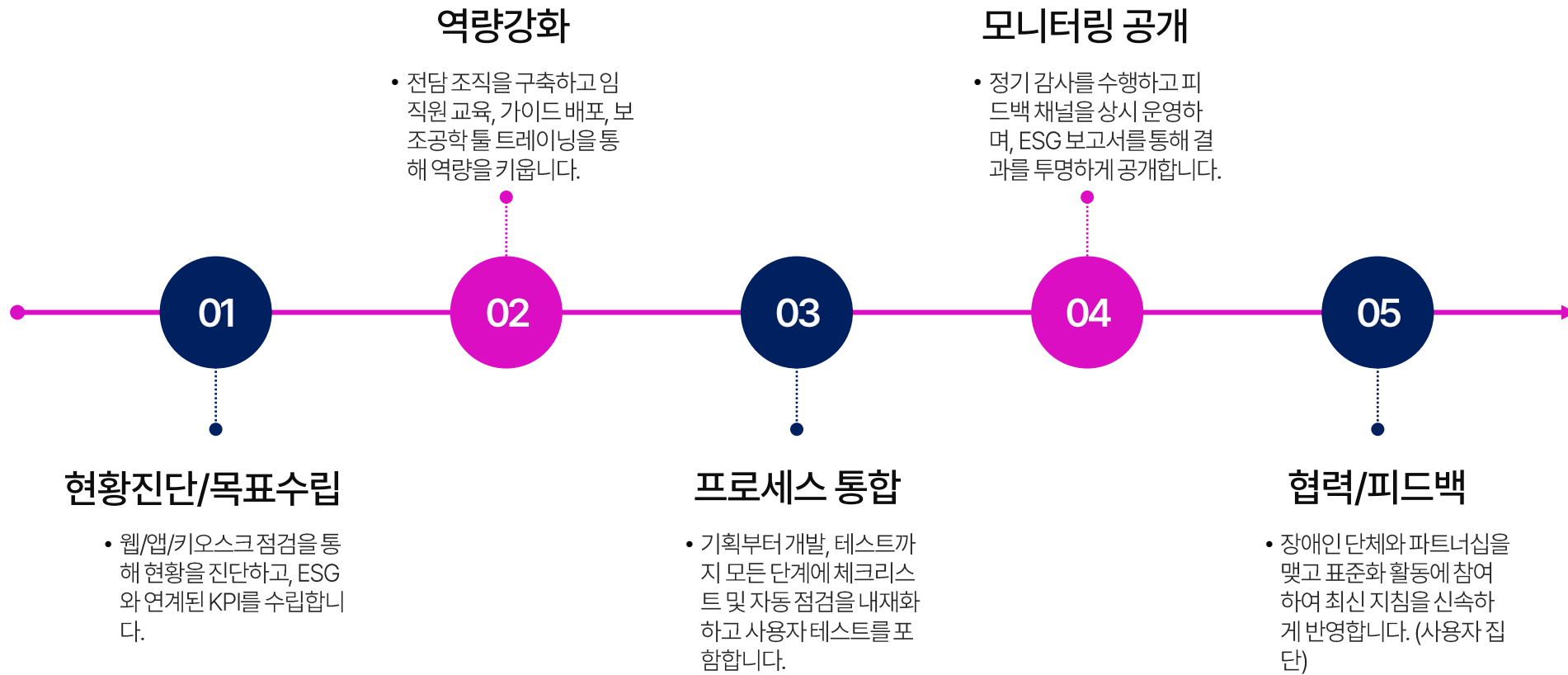
기획-디자인-개발-테스트 전 단계에 보편 설계를 적용합니다.

- 협력 거버넌스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4-2. 기업/기관을 위한 정보 접근성 실행 로드맵

기업과 기관은 진단→교육→내재화→평가→협력의 단계로 접근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4-3. 초지능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다가오는 초지능 사회를 사전에 준비하여 디지털 포용과 인권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전달함.

AI 시대로의 전환: 준비된 자세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초지능 사회의 윤리적,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인간 가치의 조화

혁신적인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공정성, 자유와 같은 핵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포용적 혁신의 노력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속적인 포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지능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4-4.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정보화가 더욱 발전된 미래사회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중임.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하여
실제적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

1. 정보화 시대에 모든 인간이 정보소비를 위해 낭비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인다.
2.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생태계, 솔루션을 구축한다.
3.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을 배려하고 정보소비에 차별 받지 않는 환경과 도시를 설계, 구현한다.



GISC 2025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2025

- 감사합니다 -

손 학 대표이사 (주)에스씨이코리아

daniel.hark.sohn@gmail.com

ICT Standards and Intellectual Property:
AI for All